

프로젝트 소개

여성이시네 cine

2030 청년여성 영상제작 프로젝트
2018.9.21. 금요일, 19:00 - 21:30
인디스페이스(서울극장 6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사업과 연구를 실행하는 출연기관입니다. 재단은 2016년부터 청년 여성들의 시선과 목소리를 담은 성평등 단편 영화 제작을 지원하는 청년여성 영상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3년 차를 맞은 프로젝트는 2018년 『여성이시네(CINE)』라는 이름으로 협업을 통한 극영화 제작을 목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며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부터 마지막 편집까지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쉽지

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가자 12명 모두가 폭염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4편의 단편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2018년 여름은 참가자들이 작품만큼이나 소중한 동지를 만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12명의 청년들이 만든 영화가 성평등 세상을 꿈꾸며 각자의 공간에서 분투하고 있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가자 김하경, 김하영, 노헬레나, 민주원, 박예지, 박주은, 신혜인, 유승연, 유혜민, 윤고운, 위정연, 정다솔 (총 1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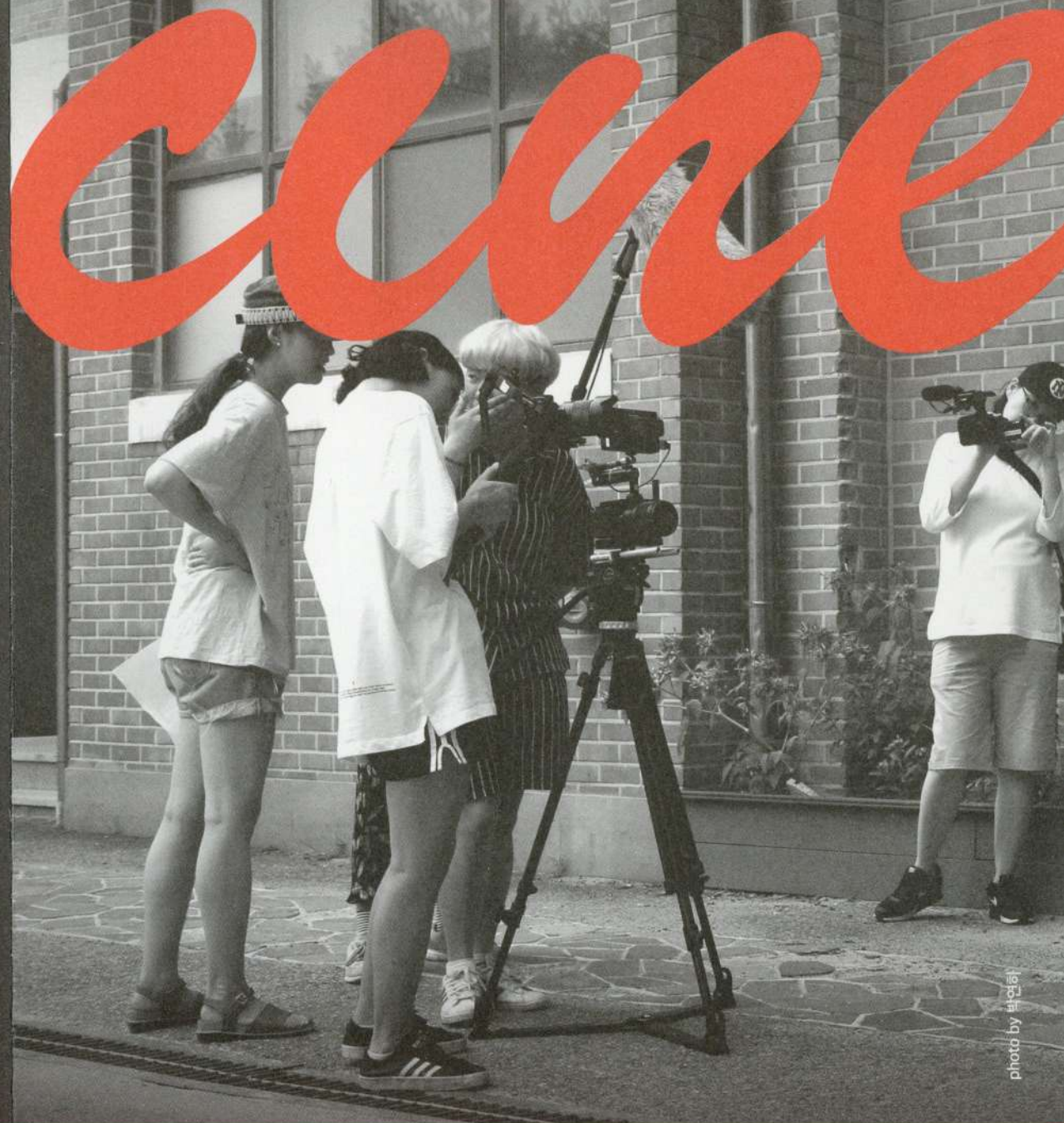
상영회 프로그램

19:00 - 19:05	오프닝	사회 : 신지민 · 손경화 (영화감독, '16~'17 프로젝트 총괄)
19:05 - 19:15	환영사 영상 축하	강경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박원순 서울시장
19:15 - 20:15	1부 상영	낙서 (유승연, 정다솔) 보호 (김하경, 박주은, 윤고운) 연애편지 (김하영, 박예지, 위정연) 여자는 여자의 미래다 (노헬레나, 신혜인, 유혜민)
20:15 - 21:30	2부 대담	메이킹다큐멘터리 (류은애) 감독과의 대화

2030 청년여성 영상제작 프로젝트

여성이시네

2018.09.21



작품 소개



낙서 Scribble

각본/연출 : 유승연, 정다솔

러닝타임 : 7분 30초

출연 : 홍하나임, 정다솔

작품소개 : 고등학생 승연은 어느 학생들과 다름없이 기말고사 공부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러던 어느 주말 한 대기업이 승연의 학교에서 시험을 친다. 다음 날 등교한 승연은 자신의 책상에 적혀있는 불쾌한 낙서를 발견한다.



연애편지 Long way to go home

각본/연출 : 김하영, 박예지, 위정연

러닝타임 : 12분 06초

출연 : 이민영, 임꽃신

작품소개 : 부모님이 1박 2일 여름 바캉스를 떠난 사이, '도경'은 자신의 여자친구 '하영'을 집에 초대한다. 즐거운 휴데이트가 끝나고, '하영'을 배웅하는 길에 '도경'은 부모님이 곧 집에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는다. 바로 그때, 집 안에 연애편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된 '도경'. '도경'은 부모님이 편지를 불세라 전전공공하며 집으로 달려가는데... 과연 '도경'은 부모님보다 먼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보호 Protection

각본/연출 : 김하경, 박주은, 윤고운

러닝타임 : 5분 36초

출연 : 양진선, 민주원, 서원, 신정훈

작품소개 : 오랜만에 엄마의 미용실에 들른 딸. 신경 쓰지 않은 듯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말라비틀어진 낙엽 같이 평퍼짐한 원피스를 입고서 잠든 딸의 모습이 엄마는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어떻게든 예전의 파릇파릇한 모습의 딸로 되돌리고 싶어 딸에게 염색을 시키려고 하는데, 손님이 들어온다.



여자는 여자의 미래다 Woman is the future of woman

각본/연출 : 노헬레나, 신혜인, 유혜민

러닝타임 : 18분

출연 : 정미형, 최은화, 정동률, 신운섭

작품소개 : 대학에서 페미니즘 활동을 하는 '희잔'은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며 졸업을 앞두고 있다. 만년 대리 '지영'은 입사 후 처음으로 서울에 출장을 오게 된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두 사람은 출장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프로젝트를 이끈 사람들

이란희(프로젝트 총괄) 나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우리의 영화를 만들어낸 여러분들께 지지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성의 현장을 꿈꾸었고 여성들의 이야기를 만들고 나누길 원했던 시간들. 워낙 짧은 시간 동안 만든 영화라 아쉬움이 가득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동료들 만날 수 있었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작업의 동료로, 인생의 벗으로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류은애(기술멘토) 영화 작업을 함께할 동료를 찾고 싶다면 여러분의 열정적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 열정적인 모습에 저 또한 자극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영화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에게 전하길 바라며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 참가한 사람들

김하경 영화 촬영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누구와 함께 찍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또 함께 찍고 싶습니다.

김하영 자기소개 시간을 기억한다. 어떤 분이 이렇게 소개를 시작했다. 저는 레즈비언이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나를 솔직히 드러내도 괜찮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안심했다. 열두명의 서로 다른 여성들이 함께한 영화 프로젝트는 정말 재미있었고 내가 '여성' 뿐만이 아닌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해치지 않으면서 영화와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냈다. 아주 몽글몽글한 것. 이 경험이 누군가에게 상처 주어야만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노헬레나 페미니즘을 탐구하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페미니즘 영화를 만든다니! 지난 2개월 동안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에 폭 빠져 지냈습니다. 감독님과 선생님들로부터 어떻게 페미니즘 영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배우고 여성이시네 3기 멤버들과 고민을 나누다보니 어느덧, 우리 여여미 팀원들과 스텝, 배우 중 누구 하나 빠지면 돌아가지 않는 촬영 현장을 마주했습니다. 그 안에서 부딪히며 느끼고 체화된 감각들은 제 삶에 오랫동안 머무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성이시네 3기라는 매듭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위한 첫 매듭일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 자주 봐요~

민주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좋은 현장 속에 있었기에 힘들었지만 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간절히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살아있는 기분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박예지 책과 강의로만 영화 만들기를 배웠습니다. 그러다 '여성이시네'를 통해 드디어 영화를 직접 만들어 보는 꿈을 이루게 되었네요. 기본부터 실천까지 가르쳐주신 감독님, 선생님들, 노하우 없이 의욕만 앞선 저를 프로젝트 내내 이끌어주고 조언해 준 팀원들, 동기들 모두 감사합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연애편지>가 제 인생의 마지막 연출작이 아니기를!

박주은 처음 해보는 것이 많아 즐거웠고 맘껏 머뭇거릴 수 있어 좋았습니다. 새벽에 식물을 구하러 갔던 꽃시장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유승연 죽고 싶을 만큼 더웠던 올해의 여름이 남긴 것은 수많은 꿈과 여성이시네였다. 단순한 영화 제작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는 여성들의 연대를 만들었다는 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다. 과거의 승연이가 다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달라진 우리는 당신의 세계를 부술 것이다!

유혜민 아, 혼자 뭔가를 만들던 낭랑청년 혜민은 레나와 혜인을 만나 영화를 만들게 되는데~ 과연 그들은 잘 마칠 수 있을 것인가!

윤고운 영화를 만드는 것은 정말 재밌지만 재미로만 하기에 힘든 작업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선했 내보이기 어려운 작품이라 할지라도 동료들과 함께 만들어냈다는 것이 스스로 대견하다. 내 발걸음에 놓치는 존재가 없기를.

신혜인 여자는 여자의 미래다!

위정연 촬영장을 이끄는 헤드 스텝이 전원 여성이라는 것. 그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영상을 배우기 시작한 20살부터 막연하게 포기했던/당했던 나날들이 많았다. 하지만 뜨거웠던 여름, 나는 어떤 가능성을 몸소 체험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는 것. 짧지만 눈부시게 빛나던 2개월. 2018년의 여름은 나에게 벅차오른 심장으로 기억될 것 같다.

정다솔 자신이 어리다는 이유로, 피해자임에도 어른들의 의견에 이리저리 치이는 승연. 우리는 다들 한번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 승연을 만나면서 나의 어린시절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어서 좋았다.